

##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

홍 진 철

오늘 우리 민족앞에 나선 가장 절박하고 중대한 과업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것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장장 70여년동안이나 외세에 의하여 분렬의 고통과 불행을 겪고있는것은 더이상 참을수 없고 용납할수 없는 민족의 수치이다.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민족의 분렬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가셔지지 못하고있으며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도 이룩되지 못하고있다.

온 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맞게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면 하루빨리 북남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북남관계개선이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선결조건이기때문이다.

외세에 의한 인위적인 분렬로 하여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반세기이상이나 존재하여오고있으며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어있다.

남조선에서는 《년례적》, 《방어적》이라는 간판을 내들고 해마다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이 벌어지고있으며 이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든지 전쟁의 위험이 가셔져본적이 없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침략전쟁연습들이 벌어지게 되는 중요한 요인은 남조선당국이 우리 공화국을 평화와 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 동반자로 간주하지 않는 데 있다.

우리 공화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항시적으로 침략하려는 전쟁정책,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추구하는데로부터 남조선에서는 겨레의 념원과 배치되게 매일과 같이 전쟁연습들이 벌어지고있으며 민족의 머리우에는 전쟁의 검은 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다.

오늘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날카롭게 대치되어있는 북과 남의 방대한 무력과 항시적으로 조성되어있는 폭발전야의 정세를 해소시키지 않고서는 북남관계개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한피줄을 나눈 동족을 화해와 단합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총부리를 맞대고 싸워야 할 적으로 대하면서 북침핵전쟁책동을 일삼는다면 언젠가도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민족분렬의 가슴아픈 비극이 세기를 이어 오늘도 지속되고있는것은 결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미제와 야합하여 무력증강책동과 북침핵전쟁소동을 끊임없이 벌려왔기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은 무턱대고 우리의 자위적행사들에 대해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미제를 비롯한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무력증강책동과 북침핵전쟁소동에 미쳐날뛰고있다.

박근혜역적패당은 지난 4년동안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때없이 남조선에 끌어들이면서 침략적인 대규모전쟁연습들을 년평균 40여차례나 벌려놓았으며 조선반도정세를 사상 최악의 전쟁접경상태에 몰아넣었다.

평화와 전쟁, 안전과 위협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남조선에서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책동과 북침핵전쟁소동이 종식된다면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이 사라지게 될것이며 북남관계개선의 중대한 돌파구가 열리게 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이 벌려놓는 침략전쟁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실현해보려는데 그 범죄적흉계가 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침략적성격에 있어서 천하 무도하고 실행방식에 있어서 파렴치하며 극악한 북침핵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수시로 감행되는 각종 북침핵전쟁연습은 이 땅의 평화와 나라의 통일, 후손만대의 부강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짓밟는 악랄한 도전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련북화해정책으로 바꾸고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나선다면 조선반도에는 평화가 깃들게 될것이다.

물론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기본장본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미제는 세계제패의 흉악한 목적으로부터 남조선을 틀어쥐고 물려나려 하지 않고있으며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 수많은 핵전략자산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이면서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조선반도정세를 핵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있다.

하지만 미제가 제아무리 《유일초대국》을 운운하며 침략전쟁에 광분하여도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한다.

남조선당국이 미제와의 공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공조제로 돌아선다면 남조선강점미군도 더이상 남아있을 구실을 찾을수 없게 될것이며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연습도 없어지게 될것이다.

력사는 단합된 민족의 힘앞에서는 그 어떤 침략자도 당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서 기본은 우리 민족이며 남조선당국이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는가 하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그릇된 자세와 립장을 버리고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나선다면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될것이다.

북남관계개선이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조국통일위업을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전제이기때문이다.

조국통일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온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로 단결하면 그것이 곧 우리 겨레가 바라는 조국통일이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성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뜻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으며 민족의 대단결에 우리 겨레가 살아나갈 출로가 있으며 부흥과 번영이 있다.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동족대결책동이 초래한 교훈을 순간도 잊지 말고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 나가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이 이루어지자면 접촉과 래왕, 대화를 발전시키고 련대련합을 강화하여야 한다. 접촉과 래왕,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신뢰와 화해가 이루어질수 있으며 련대련합속에서 민족적단합이 이루어지고 공고화되게 된다.

민족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 대화와 련대련합은 북남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우리 공화국을 통일의 동반자로 보고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련북화해정책으로 바꾸어 민족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 대화를 허용하고 장려하여야만 민족적단합을 가능케 하는 래왕과 접촉,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는것이며 련대련합이 활발해지게 된다.

이처럼 북남관계개선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그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다.

동족과 손을 잡으며 북남관계를 개선하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시대가 열리게 되지만 동족대결에 매달리며 북남관계가 파탄되면 조국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이 그만큼 멀어진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다.

지난 시기 남조선당국자들이 추구해온 동족대결책동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동족사이에 불신과 적대의 악순환만을 초래하였으며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억제하고 가로막아왔으며 평화와 통일에는 엄중한 난관만이 조성되었다.

1970년대초 조국통일3대원칙에 합의하고도 《대화있는 대결》을 부르짖은 박정희역도에 의해 민족적화해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대화는 결실없는 협상으로 공회전만 거듭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남조선수재민들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동포애가 담긴 구호물자지원을 계기로 모처럼 마련되었던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분위기도 미국상전의 지령에 따라 간첩단사건과 같은 모략극을 날조해낸 전두환일당에 의해 줄지에 얼어붙고말았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서도 미제의 《북핵공조》에 맞장구를 치며 핵을 가진 상대와는 손을 잡을수 없다고 쉼쳐대다 못해 대국상을 당한 동족의 피흐르는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며 평화와 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한없는 도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위업실현에서는 전환적국면이 마련되었다.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발표됨으로써 자주통일의 력사적리정표가 마련되었으며 삼천리강토에는 장엄한 통일시대가 펼쳐졌다.

북남선언들이 리행되던 6.15통일시대는 불신과 대결로 얼룩졌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 협력을 도모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시키었다.

북과 남이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감으로써 경이적인 사변들이 연이어 펼쳐졌다. 겨레의 가슴속에 민족자주정신이 깊이 뿌리내리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가는것이 민족사의 흐름으로 되었다.

그러나 지금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우리 겨레가 간고한 노력을 기울여 이룩한 그 소중한 성과들은 지금 반통일세력들에 의하여 무참히 파괴된 상태에 있으며 6.15의 산물로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개성공업지구마저 전면폐쇄되었다. 남조선피괴들은 소중한 6.15통일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거부해나서고있으며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력은 없이 불신과 대결만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6.15통일시대의 환희롭던 어제와 그와는 정반대인 오늘의 현실은 북남관계를 개선하면 우리 민족이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룩하며 통일로 나아갈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불행과 재앙을 피할수 없고 나중에는 전쟁의 재난까지 들쓰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무모한 동족대결소동을 벌이지 말아야 하며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남관계개선에 나와야 한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중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그 어떤 《변화》에 기대를 걸고 감행되는 불순한 반공화국모략소동과 적대행위들은 지체없이 중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걸어치우지 않는 한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고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민족공동의 대강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자주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강령적지침인 북남공동선언들이 있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내외반통일세력의 외세의존과 민족분열, 북침전쟁책동을 분쇄하고 평화번영과 통일을 안아오는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력사의 법칙이다.

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지향이 정의이고 진리이다.

오늘 북남관계가 내외반통일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일시 난관을 겪고있지만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되는것은 민족사의 필연적추이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감으로써 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여 북남관계개선, 평화, 통일